

# 세류 화가 이남석 '흐르는 것을 그리다'

5월 2~31일 기린미술관서 초대전 개최

이남석 세류 화가 초대전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 열린다. 그동안 작가의 붓질은 역동적인 동작의 회화성을 살리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그는 작가와 법인, 예술과 삽질, 이상과 현실, 미래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는 현상을 치열한 동작의 연속성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의 작품속에는 어디인가 귀결될 것을 찾아 헤매나 목격지에 다다르지 않은 군상들의 처절함이 현란함 속에 녹아 있었다. 전통의 한국화 개념을 뛰어넘는 이 새로운 사유공간에 시선이 머무는 것은 단순히 표현의 틀을 깨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만든 스스로의 속박일 수 있다.

그러던 그가 변했다. 그가 좋아하던 술도 끊고 즐겨하던 담배도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과 같이 그림의 색조도 밝고 화려하며 더 이상의 꿈과 비전을 그리고 있다. 날아오르는 조나단의 갈매기가 창공을 비상하는 듯한 모습으로 변했다. 검은 색으로 갈등과 불만과 빈곤을 표상하던 이미지에서 밝고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으로 변했다. 세류 화가 이남석은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17회째 개인전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전업미술가상과 전주미술상을 수상하였고, 전시작가 선정으로 미국 뉴욕에서도 전시회를 가졌다. 현재 이작가의 그림은 전북도립미술관과 전라북도 검찰청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김재훈 기자



이남석 세류 화가 작품

# 국립민속국악원, 2주차 판놀음 펼쳐진다

26~29일 별별창극 · 토크셋쇼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원당·예음헌에서 2주차 공연 '별별창극' 두 작품과 '토크셋쇼 여쭙(女舌)'을 선보인다. 별별창극은 28일 오후 7시 고창농악보존회 '이팝:소리꽃'이 무대를 열며, 이번 작품은 고창 출신 여류 명창 진채선 성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국악뮤지컬이다. 29일 오후 3시에는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의 창극 '내가 이놈 토끼냐?' 공연에서 판소리 정광수 바디 수궁가를 기본으로 만든 작품으로, 기존 수궁가의 이야기를 새로운 색깔로 풀어낸 극이며, 온갖 동물들이 나와 상좌를 정하는 '상좌다름 대목'에 새로운 해석을 더해 EDM에 맞춰 색다른 모습으로 펼쳐낼 예정이다. '토크셋쇼'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창·명인들이 풀어내는 그 시절 이야기와 함께하는



왕기석 원장



창극 '내가 이놈 토끼냐?' 공연 모습

토크콘서트로, 27일 오후 3시에는 판소리 여류 명창 신영희, 박안덕, 김영자, 김수연, 강정숙 다섯 명이 함께 모여 열띤 수다 보따리를 풀어낸다. 한편 진행에는 국립민속국악원장인 왕기석 명창이 직접 참여해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예약은 누리집(홈페이지), 전화(063-620-2329),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독립영화협회 인연 작품, 전주국제영화제서 상영

전주 곳곳서 지역독립영화 만날 수 있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역영화인들의 다양한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전북독립영화협회와 인연이 깊은 작품들이 상영된다. 전북독립영화협회에서 진행한 마스터와 함께 하는 상상 단편영화 프로젝트 12기로서 '우두'를 연출한 김은성 감독의 'COMPUTER'가 한국단편경쟁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골목상영(전주부성길따라)에서 현재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금태경 감독과 박태양 감독의 '식혀준다, 읽어준다'와 금태경 감독의 '두개의 유네스코'와 역시 전북

독립영화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내에서 꾸준히 활동중인 제16회 오사카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재능상을 수상한 최진영 감독의 '태어나길 잘했어'와 '가장 환하고 따뜻한'이 상영된다. '가장 환하고 따뜻한'은 제 20회 전북독립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상영될 예정으로 지역영화인들이 만든 작품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또 다르게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작년 전북독립영화협회와 상상유니브가 함께 진행한 마스터와 함께하는 상상단편영화제작프로젝트에서 제작한 태자경 감독의 '부유'와 박현준 감독의 '높은 마음'도 상영된다. /김재훈 기자

두작품은 제22회 전북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제22회 전북독립영화제에서 응골진상(대상)을 수상한 김규민 감독의 '매일의 기도'도 상영되면서 지역영화인들의 꿈과 노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무료로 상영되며, 영화의거리, 동문거리, 동근숲, 남부시장 하늘정원등에서 상영되며, 전주 곳곳에서 지역독립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이벤트 중 지역밀착형프로그램 골목상영(전주 부성길 따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JB문화공간에서 지난 20일 렉처 콘서트 '러브 인 뮤직(Love in Music)' 두 번째 공연을 개최했다.

# JB문화공간, 클래식 렉처 콘서트 '러브 인 뮤직' 두 번째 공연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20일 렉처 콘서트 '러브 인 뮤직(Love in Music)' 두 번째 공연을 개최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공연까지 연속 100여명 이상의 관객이 함께 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플루티스트 이현주 교수와 피아니스트 정혜연 교수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프리드리히 쇼베의 '플루트와 바소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를 비롯해 찰스 마리 비도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폴 타파넬의 '오페라 미용 주제에 의한 그랜드 관타지' 등을 연주했으며 렉처 콘서트의 예술 감독인 전주시립교향악단 상기선 지휘자의 수준 높은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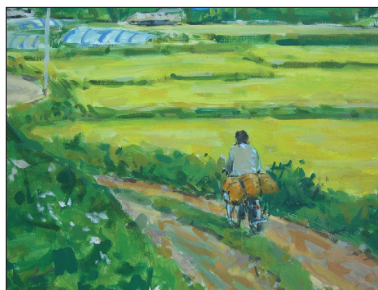
성 감독은 "이번 공연은 봄의 감성에 잘 어울리는 낭만적인 플루트 곡들을 선정해 관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았던 것 같다"며 좋은 기획으로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JB문화공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렉처 콘서트 '러브 인 뮤직(Love in Music)'은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공연은 오는 6월 1일에 첼리스트 박노을과 비올라니스트 에르완 리사 교수의 무대가 마련된다. JB문화공간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 및 JB문화공간(063-288-7797)을 통해 가능하며 회원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대관, 강연 및 공연의 우선 참여 기회 및 JB카페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재훈 기자

# 김제시, 이동형 거리미술관 전시회 개최

5월 20일까지 박천복 초대전 '삶, 추억의 사람들'

김제시는 오는 5월 20일까지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이동형 거리미술관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천복 작가는 시대의 발자취를 인물과 풍경을 중심으로 화폭에 기록하는데 "우리 주변의 모습과 시장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통해 인간 분연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상실해 가고 있

는 현대인들이 우리의 문화적 정서와 정체성을 되짚어 보고 잊혀져 가는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작품을 제작하였다"면서, "사라져 가는 주변의 모습과 우리의 애환을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말한다. 한편 김제시는 2023년도 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을 위해 지난 3월에 전시 참여작가 공모를 진행했으며,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김제에서 활동하는 작가 6명(박천복·임영하·박광철·강지음·김승학·김삼수)을 선정했다. 선정된



박천복 작가 작품

작가들에게는 30일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지원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